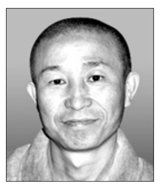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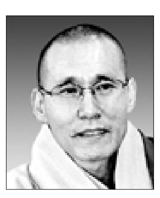


인드라망 귀정사 숲 템플스테이

도법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스님은 9월 19일부터 20일까지 남원 인드라망숲살림원에서는 '아이와 함께하는 귀정사 숲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사경기도

원명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10월 1일~21일 오후 6시 조계사서 '제2차 신묘장구대다라니 3·7독 사경기도'를 진행한다.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

원학 서울 봉은사 주지 스님은 10월 8일 오후 2시 '사찰건강도시락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9월 21일 접수 마감해 10월 8일 본 경연대회를 실시한다.

교정인불자연합회 수련법회

민육기 전국교정인불자연합회 회장은 10월 3일~4일 마곡사서 수련법회를 개최한다.

정찬주 작가 오스트리아서 강의

정찬주 작가는 9월 2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추기경문화회관에서 '한국인에게 불교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연한다.

"불교방송 '제2의 도약' 이루겠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제9대 사장

오는 10월 8일 취임식 개최
직원 워크숍·대외 홍보 강화
내·외부 소통위한 사업 추진
BBS 발전 담은 비전 선포도

"9월 1일 업무현황을 문서로 보고 받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식 업무일은 오는 9월 27일부터이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도 출근해서 방송국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취임식 준비도 철저히 하려 합니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제9대 사장〈사진〉은 9월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계획과 취임식에 대해 간략히 밝혔다. 선 사장의 취임식은 오는 10월 8일 서울 마포구 다보빌딩 3층 다보원에서 열린다.

7월 22일 불교방송 이사회에서 선출된 선 사장은 지난 2개월여 동안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 불교방송 이사장 종하 스님,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을 예방하고 불교방송에 대한 관심을 부탁해왔다. 또한 불교방송 발전 방안 구상도 지속적으로 준비했다.

실제 선 사장은 후보 당시 이사회에 6대 목표 28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 6대 목표는 △사옥 건립 △효율적인 조직 운영 △재무 건전성 확보 △시청률 및 청취율 제고 △프로그램 제작 내용 및 환경 개선 △언론사 위상 정립 등이며, 세부 계획으로는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신규 불교문화콘텐츠 제작, 공정한 인사제도, 라디오 주파수 추가 확보, 시사 보도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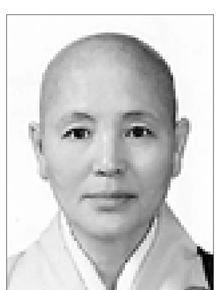
이날 자리에서도 내·외부 소통을 위한 자신의 생각들을 피력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불교방송 처음 개국 당시 모두가 환희심을 갖던 시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중요하다고 했다.

"현재 조계종과 대한불교진흥원의 관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매끄럽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취임 이후 9월 30일 직원 조회에서는 김규칠 진흥원 이사장이 격려사를 하고 10월 8일 취임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참석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 불교방송 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것은 개국 이래 두 번째 있는 일입니다. 이번 취임식은 개인의 일을 넘어 '제2 개국 선언'의 의미를 가집니다."

선 사장은 '소통'의 주요 방안으로 직원 전체 워크숍과 미디어 전문가 세미나, 외부 홍보를 위한 홍보 라인 강화 등을 제시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는 정관계 인사가 참여하는 불교방송 비전 선포식도 계획 중이다.

"취임식에서는 불교방송의 대략적 운영목표를 발표하고 이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 운영 계획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직원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내놓을 것입니다. 불교방송이 불법 홍포의 미디어이자 사회의 공기(公器)임을 자각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묘각 스님 선출



한국불교미륵종은 9월 1일 새 총무원장 선임을 위한 중앙종의회(의장 보성)를 열고 총무원장 권한대행 묘각 스님을 만장일치로 한국불교미륵종 제5대 총무원장으로 추대했다.

총무원장 추대는 종헌 상 절차에 의해 법인이사회(이사장 : 법일 스님)에서 이사 5명의 전원 찬성으로 인준을 거쳐, 종정 무불 스님의 재가를 받아 9월 1일자로 실시됐다.

한국불교미륵종 제5대 총무원장으로 선임된 묘각 스님은 한국불교미륵종 재무부장과 중앙교구원장, 종회의원, 감찰원장, 법인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묘각 스님은 "미륵종단 중흥과 위상 향상 발판마련을 위해 종단 분규사태로 흐트러졌던 조직을 재정비해 종단 기강을 확립하고 진정한 종도화합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바로 잡습니다〉

제1061호 2면에 자료오류로 인해 잘못 보도된 능인선원 서울대불 높이를 18m에서 **38m**로 정정합니다.

100분 선지식에 진리의 법 청하다

만청 한국불교최고지도자연합회 총재 스님

9월 15일 오후 2시 부여체육관서
백고좌 및 진신사리 친견법회

"나라 안팎으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국운융창과 국민화합을 위한 평화가 절실합니다. 이에 각 종단의 종정과 총무원장 및 원로 스님들 100여 분을 모시고 감로법문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9월 15일 오후 2시 충남 부여군민 실내체육관서 세계평화기원 백고좌 대법회 겸 진신사리 친견법회를 여는 석만청 한국불교최고지도자연합회 총재 겸 대각종 종정 스님〈사진〉은 이번 법회의 취지를 이렇게 피력했다. 백고좌법회는 나라의 평안을 기원하고 백성의 고통을 구제하기 위해 100일 동안 매일 한 분씩 100인의 큰 스님을 모셔 법문을 듣는 법회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진평왕 때 황룡사에 백고좌를 차리고 원광법사 등을 맞아들여 설법한 것이 처음이었다. 이번에 4회째를 맞은 백고좌 법회는 종단을 초월해 한국불교에 영향력을 미친 스님들을 초청해 하루동안 법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어 문화마당이 펼쳐지며, 특히 부여 미암사에 보관중인 1과서 3과로 증과된 진신사리를 이운해 친견하는 진신사리 특별친견법회도 마련된다. 만청 스님은 "현실 감각에 맞고 삶의 번뇌를 물리칠 수 있는 단비 같은 말씀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삶의 진리를 청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조계종·서울시 노동권익 힘모아

노동위, 9월 9일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업무협약

왼쪽부터 김성희 소장, 사회부장 정문 스님, 노동위원장 혜용 스님.

각종 사회문제에 앞장서온 조계종 노동위원회가 이번엔 서울시와 손잡고 노동자 권익 신장을 위해 나선다.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 이하 노동위)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9월 9일 노동자 마음과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사회부장 정문 스님, 위원장 혜용 스님과 서울노동권익센터 김성희 소장, 심재옥 기획협력팀장 등 함께했다.

노동위와 권익센터는 향후 노동자템플스테이, 심리상담 및 명상프로그램 등 마련하는 등 상호업무협력 체계를 구축·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혜용 스님은 "많은 소방관들이 외상후스트레스 증후군 등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들었다. 소방관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것"이라며 "불교계와 서울시가 합심해 템플스테이, 명상프로그램 등으로 근로자들의 쉼터를 마련해줄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박아름 기자**

고운사, 각성 스님 대승기신론 특강

고운사(주지 호성)가 9월 7일~11일 고운사 화엄템플관에서 각성 스님 대승기신론특강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각성 스님은 "과거의 보살들이 이미 이 법에 의지하시어 청정한 믿음을 얻어 이루셨다. 현재의 보살이 지금에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얻어 이루며 미래의 보살도 마땅히 이 법에 의지하여 청정한 믿음을 얻어 이룰 것"이라고 법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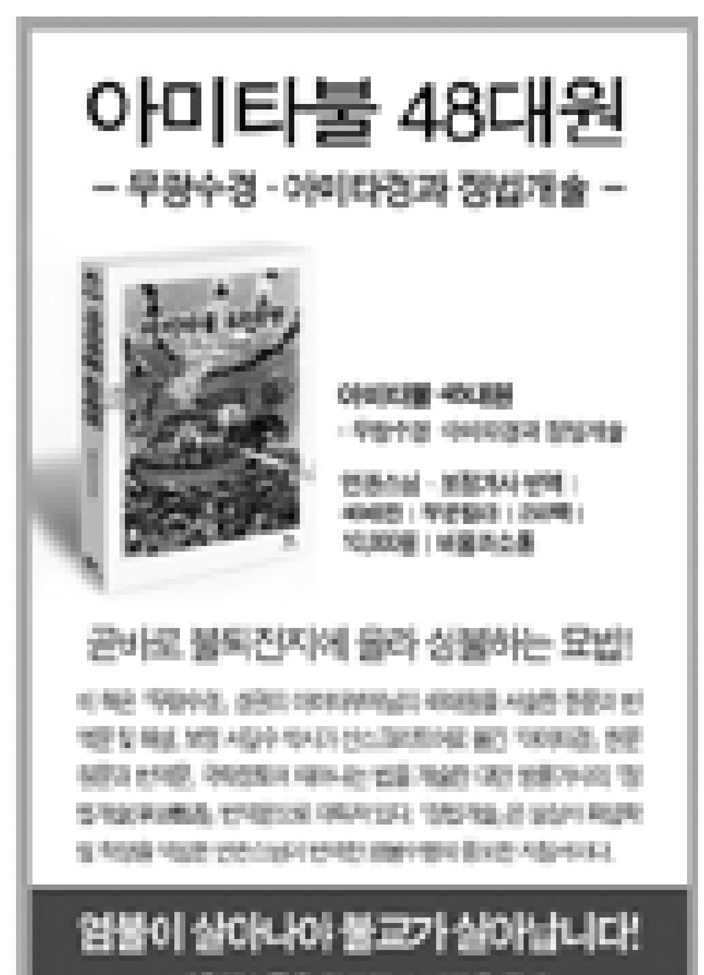
한편, 고운사 특강법회는 조계종 승려연수교육 인증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교육점수 30점이 부여된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영천 은해사 불교대학 수계식

영천 은해사(주지 돈관)는 9월 9일 은해사 영천포교당에서 수계식을 봉행했다. 이 자리에서 80여 명의 불자들은 은해사 주지이자 은해사 불교대학장인 돈관 스님으로부터 계를 받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특별법문을 통해 업에 대해 말하며 앞으로 대중들이 참된 불자로 살기를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법왕사 제 30회 백고좌대설법회

대구 법왕사(주지 실상)가 9월 9일 제30회 백고좌대설법회 입재식을 가졌다. 법회는 중심문도회 회주 심경 스님을 증명법사로 12월 17일까지 100일간 열린다. 법회의 첫 법사로는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이 나섰으며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각 스님은 "초발심의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정각을 이룬다"면서 승만경을 강설했다. (053)766-3747

손문철 대구지사장